

역사도, 운명도, 자연도, 강물따라 흐르고 머문다

우리문화사진연구소 '섬진강 이야기'展...2-29일 드영미술관

발원지 진안부터 하구 망덕포구까지 섬진강 옛 이야기 담아
풍경·마을·문화유적·사람 등 4부로 구성...‘순회전’도 기획

강은 문명의 발상지다. 사람을 불러 모아 마을을 이루고, 길과 장터를 만든다.

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노동과 신앙, 축제와 기억이 켜켜이 퇴적되고 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남도 문명의 발상지는 단연 섬진강과 영산강이다. 이 두 강은 문명사를 잊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문화사진연구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강의 발원지부터 바다로 합류되는 종점까지를 전부 기록한다.

단순 강의 풍경을 넘어 역사 아카이브의 발굴을 위해 문화유적과 사람, 마을 등 총체적인 풍경을 담아낸다.

총 망라한 사진자료를 모아 연구소는 2일부터 29일까지 드영미술관 1, 2전시실에서 사진전 ‘섬진강 이야기’를 개최한다.

전시에는 김금옥, 김성민, 박종훈, 박철수, 송은순, 오상조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 90점을 선보인다.

섬진강의 풍경, 마을, 문화유적·사람, 오래된 섬진강 등 총 4부로 나눠 구성된 이번 전시는 섬진강의 발원지 전북 진안군 데미샘부터 바다와 합류하는 지점인 광양군 망덕포구까지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광주대 문화예술학장을 역임한 오상조 교수가 찍은 2000년 섬진강 사진에는 남도대교가 생기기 전 광양 다압면에서 쇠줄을 연결해 나룻배를 타고 화계장터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1990년대부터의 섬진강을 사진으로 기록한 170여점의 작품을 담은 ‘섬진강’ 사진집도 발행한다. 앞서 2023년 발간된 영산강 사진집에는 발원지 담양 용소부터 목포 하구원까지의 풍경과 문화유적, 사람을 담아냈고, 역사 아카이브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4년 광주미술관에 기획초대전을 열기도 했다.

연구소는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확장하고자 무등산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장소에서의 순회전을 준비하고 있다.



박철수작 '순창 체계산'



박철수작 '임실 옥정호 봉어섬'(왼쪽)과 오상조작 '광양 화계나루 2000년'

박철수 우리문화사진연구소 대표는 “수없이 반복되는 물길과 시간의 흐름이 한층 한층 겹겹이 쌓여 섬진강이라는 살아 있는 지층을 만들었다”며 “우리는 이 지층의 일부분만을 사진으로 도출한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빛과 사람들의 숨결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펼쳐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섬진강 풍경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자연과 삶의 터전을 기록하는 일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기억을 지키려는 조용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오복기자

찰나의 순간에 스며든 문학의 향기

전남광주다카시인협회 '다카시의 창'...10일까지 전남광주특별시청 1층 갤러리

사진이 포착한 찰나의 순간이 시적 문장과 만난다.

언어 예술이라는 기존 시의 범주를 확장해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언어 예술 ‘다카시’를 설명한 말이다.

다카시는 디지털카메라(다카)와 시(詩)의 줄임말로,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해 찍은 영상(사진)과 문자를 함께 표현한 시다. 2016년 국립국어원에 문학 용어로 등재됐다.

전남광주에서도 다카시는 문화예술계에 한 장르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다카시인협회는 그동안 이어온 작품 활동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1일부터 1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1층 갤러리에서 협회 회원 30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다카시의 창’ 전시를 개최한다.

‘다카시의 창’은 다카시가 폭넓게 확산되고 다카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다카시는 열려있다’를 주제로 열리며, 신수경 작가의 ‘대기만성’, 문병선 작가의 ‘불 그리고 불’, 박경자 작가의 ‘블랙아이’, 정현주 작가의 ‘한 선비로 되어’, 모춘복 작가의 ‘담은 마음’, 문용호 작가의 ‘마음’, 황준규 작가의 ‘엄마 닮았네’ 등 서정적 사유와 아포리즘적 작품 위주로 총 30점을 선보인다.

조필 전남광주다카시인협회 대표는 “다카시가 생활문학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 속에 일반 독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주변의 다양한 면면을 찾아가는 생활문학의 한 통로로, 더 많은 독자와 소통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예술과 신앙’이 전네는 치유 메시지

서미 '은총의 빛'展...오는 5일까지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내 갤러리 현

예술과 신앙이 만나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시가 펼쳐진다.

서양화가이자 가톨릭 신자인 서미(SUH MI, 세례명 플로라) 작가는 오는 5일까지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내 갤러리 현에서 첫 개인전 ‘은총의 빛’을 개최한다.

작가는 30여년간 신앙 안에서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며 작품 활동을 통해 선교의 길을 걸었고, 그 결실로 첫 개인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종교적 구원과 은총,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작가는 매일 기도와 관조의 시간을 통해 평화와 희망, 생명의 기운을 붓과 나이프로 새긴 작품을 완성했다고 전했다.

서미 작가는 “이번 전시를 찾는 모든 분들이 작품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느끼고, 마음에 작은 빛과 위로를 얻어 가길 바란다”고



‘주님의 빛’

말했다.

광주무등미술관 큐레이터를 역임한 서 작가는 현재 광주미술가협회에서 활동 중이다.

/오복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